

쉽이 되는 시간, 꽃 그림

2018.02.11 김미경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 가방을 싣는다. 72색 수채 색연필, 연필깎이, 지우개, 스케치북, 작품지... 무게가 꽤 무겁다. 그러나 마음은 꽤 가볍다. 그림을 그리러 가는 길이지만 난 잠시 쉬러 간다. 스케치북을 펴놓고 72가지나 되는 색깔들로 가득 찬 색연필 곁을 열어놓고 책상에 앉아 나뭇잎 하나하나, 꽃잎 하나하나, 줄기와 꽃술을 차례대로 가느다란 선으로 그어 채우다 보면 어느새 내 삶도 차분히 채워져 간다. 온전히 나 자신만의 시간,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 자유다. 쉽다. 은혜의 시간이다.

나만의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인지 희미해져 갈 즈음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시간을 선물하기로 했다.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모든 시간을 쓰고도 늘 모자란 듯 보였고 더구나 치매이신 시어머님을 모시면서부터는 항상 비상 5분대기조로 살아오고 있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들고 온 평생교육원 안내지가 눈에 띄었고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꽃그림이 눈에 훑 들어왔다. 마침 섬김의 도구로 양금플라워를 배워 양금으로도 꽃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림도 그려볼까? 라는 생각이 스쳐 갔다. 그러나 시간을 짜내고 짜내고 짜내도 마땅치 않았다. 더 먼저 남편과 아이들의 스케줄~ 시어머님~ 시간이 없다. 한참을 망설이다 그냥 등록을 하고 시간을 먼저 빼보자!

어찌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쓰지 않는 게 아닐까?

월요일 10시. 해보자. 매주 잠시 나를 위해 시간을 선물하고 써보자!

그렇게 등록을 하고 가족들에 통보했더니 다들 잘했다고 한다. 내 마음만 불안할 뿐 딱히 내가 있어 줘야 하는 것도 아닌 시간이었는데~나를 위해 시간을 비운다는 게, 나만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게 참 이상하게도 미안했다. 다른 일들 혹은 섬김이나 예배 등을 위해서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필요한 일 같지만, 나의 쾌락을 위해 나가는 것만 같고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가족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면서 남편도, 아이들도 없는 곳으로 무언가 배우러 가는 길은 그렇게 조금은 어렵고 부담스럽게 시작되었다.

첫날은 연필로 선 긋기만 하다가 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고 온 것 같아서 식구들 앞에서 선 긋기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면서 헛헛한 부연설명을 얼마나 했던지~ 가족들은 그 선 긋기마저 기뻐해 주며 아내가, 엄마가 시간을 알차게 잘 썼다고 칭찬해 주었다. 그렇게 한주 한주 지내다 보니 내가 시간을 비워도 집안일에는 문제가 없었다. 한편으론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집안일이 서운했지만- 사실 한 시간 수업하고 온다고 서둘러 할 일도 없었는데 말이다.- 지금은 내가 놓아도 되는 일이 있구나 안심이 되고

고맙기까지 하다. 그렇게 집안일에 대한 부담을 덜고 꽃 그림을 그리니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다ㅜㅜ

이젠 그림을 그리려는 욕심이 불같이 타올랐다. 한 시간 동안 뭘 얼마나 그린다고~
남보다 더 빨리 많이 하려는 내게 강사님은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며 다독여 주셨
다. 그럼 그렇지. 집안일에서 꽃 그림으로 바뀌었을 뿐 난 여전히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
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은 집에서 그림을 끝마쳐야 한다는 부담에 한밤중 어두컴컴
한 거실 한쪽에 LED 등을 켜놓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렇게 조금
하게 그린 그림은 거칠어서 꼭 수정을 하거나 덧칠을 해야 했다.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나를 비우고 찬찬히 그리고 좀 느리더라도 그 시간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선 몇 번 긋고 나뭇잎 하나도 채우지 못하고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쉬고 가
야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내 마음을 다독이며 색을 칠하다 보면 어느새 싱그런 나
뭇잎이, 하늘거리는 꽃잎이 내 앞에 그려져 있었다. 꽃 그림을 그리며 오롯이 나만의 시간
을 가진 게 벌써 일 년이 넘었다.

이번 겨울 학기에도 처음 등록해서 오신 분들이 보였다. 내가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처럼 설렘 반 걱정 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이젠 나도 말해준다. "괜찮
아요, 천천히 하세요. 쉬고 가세요"

한 시간을 그렇게 쉬고 오면 요즘은 활력이 생기는 걸 느낀다. 조금씩 실력도
늘어가고 완성된 그림 개수도 늘어가기 때문이 아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선물하고
보니 나는 슈퍼우먼이 아니구나, 그럴 필요도 없었구나 하는 자유함을 발견해서다.
또 꽃 그림을 그리다 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더 커져간다. 대
충 대충 보던 꽃 한 송이도 자세히 보고 또 본다. 나뭇잎도 꽃마다 다 다르다. 그 다
름을 보며 놀라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칭찬의 박수를 쳐 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만드신 꽃과 식물들을 그림으로 그리며 심을 온전히 누리다 보니,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요즘엔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
과정을 즐기니, 쉬면서 하니 완성은 선물로 온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마가복음 6장 31절